

사립유치원 교사 낮은 처우 개선 시급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문제를 지적하려 한다.

전국에는 2만2천명의 유치원 교사가 있다. 1만7천명이 사립유치원 교사이며, 나머지는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중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월보수액이 50만~60만원 정도다. 아침 8시 원아들을 유치원버스에 태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버스로 집까지 실어다 준다. 그 뒤 다시 유치원에서 교실청소부터 다음날 수업준비까지 고된 업무를 해나가면서도 고작 받는 돈은 시간제 파출부의 보수 정도밖에 안된다.

이런 상황이 단지 사립유치원

의 경영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물론 도시 변두리 판자촌에서 아주 적은 돈을 받으면서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곳도 있다.

멋있는 유치원 건물 안에서 한 두명을 관리하기도 힘든 개구쟁이들을 40명씩이나 데리고 수업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보수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다.

게다가 이렇게 적은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교육관계법령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이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다. 이런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립교사에 준해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교사는 공립유치원과 똑같이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유치원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은 불법상황을 묵인하고 있다.

대학을 나와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으로 살아야 할 교사들이 생활고에 찌들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송대현/경북 안동시 남부동 159